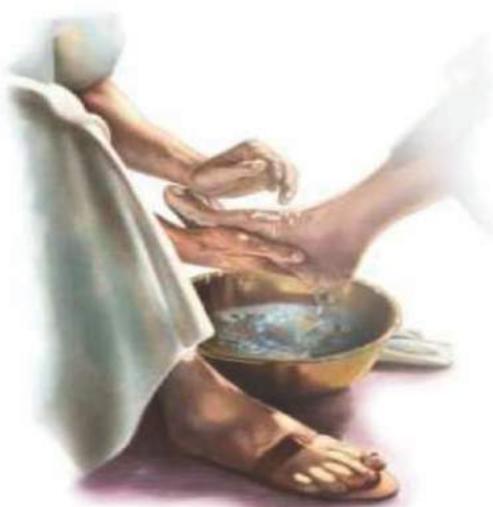


재점검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나는 보기 좋게 포장하여 예배하려 하나  
주는 있는 그대로 다 거두어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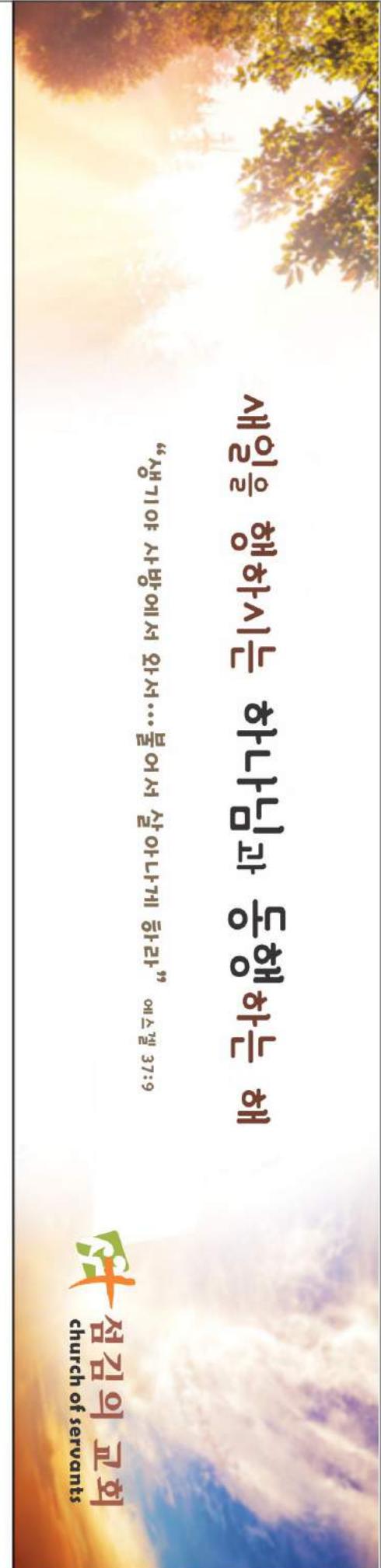
요한복음 13:14-15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야 사방에서 오서...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 예배 WORSHIP

June 6,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사역과 행사 안내

###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구민집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요엘 2:28-32
-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 찬송 184장 - 불길 같은 성신여  
(통일찬송 173장)

### 현신과 나눔

- 봉헌 / 김훈태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 보냄의 찬양 / 세상 모든 민족이
- \* 축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찬양예배

###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6:11-18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경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 2021년 후반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죽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시다.

1.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주일예배 예배를 CDC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과 CUMC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4.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5.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첨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쓱시다.
  6. 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7.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6월의 사역 - 만남과 나눔 주간(6-12),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20-26),  
선교 주일(30),  
성장과 성숙 주간(13-19),  
보훈의 날(25),  
선교 주간(27-7/3)

♥ 6월 봉인특집 ♥ 김영준(8) 홍은솔(9) 오승국(15) 이정연(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직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기도제목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6/6	6/13	6/20	6/27
	구 민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6/6	6/13	6/20	6/27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 요엘 2:21-27

삶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불의와 불공정과, 언약파기 등으로 징계와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치유, 회복과 축복을 경험한다. 회복이나 축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풍요로움을 누리는 유다는 “먹되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풍요와 물질적 복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궁핍함을 풍요함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천국의 복을 더욱 사모하자.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 요엘 2:28-32**

물질적 축복을 먼저, 영적 축복을 그 후에 주시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진흙과 생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

성령 하나님의 강림

미래를 보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본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 말씀요약

###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 요엘 2:28-32

메뚜기 재앙의 고통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누리는 복과 풍요의 기쁨에 이어, 이때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요엘 선지자가 영적 축복에 앞서 물질적 축복을 먼저 선포했던 이유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기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다. 에스겔의 환상 속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 보라. 생기, 즉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일어나 살아있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즉, 영적 축복 없이는 결코 물질적 복이 참된 복이 되지 못한다.

메뚜기 재앙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영적 축복이 먼저 선포되었으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생존을 위한 필요를 공급하신 후,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물질적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영적인 복도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영적인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안 될 일들을 고집하다 충고를 듣지 않아 뻔한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다. 세상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과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된다.

또한, 꿈은 젊은이들이 가진다. 나이가 들수록 꿈도 줄어든다.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있던 꿈도 포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꿈을 갖게 된다. 천국을 생각하면, 물리적 나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연륜이 많은 어른들만 이상과 환상을 본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깊은 영성을 가져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 더 깊은 영성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요엘 2:28의 “그 후에”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바로 지금이다. 인류를 위한 최고의 영적 축복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물질적인 것이 전부로 알던 삶이다.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한 새로운 삶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다. 재림의 날,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부활한다는 진리에 서야 한다. 육체를 입고 깊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땅에서 사는 깊은 인생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더 사모해야 하지 않는가.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이 들때…

야심차게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짚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하는 마음의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회개하며 만든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동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높이고자 했던 사울왕처럼 될 뿐이지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늘 마음을 살펴달라는  
기도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의 동기를 깨끗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멋대로 망쳐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목자 되셔서 저를 인도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하는 마음이 든때, 조심해야 합니다.  
멈추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해버리는 것은, 무대뽀이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화선 작가

그것을 놓아야  
그분이 보인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니 내 힘의 반복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니 백성들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이다.”

81편 62:7-8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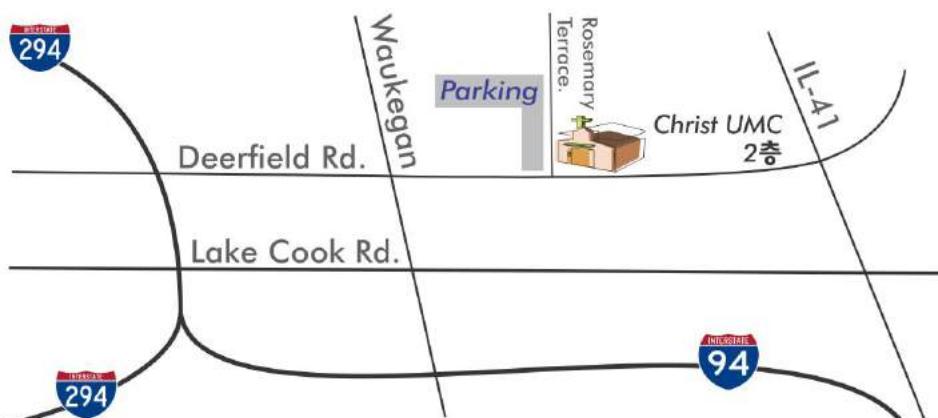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